

환경보전의 W 이론을 없애자!

곽 일 천

<환경기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느 대학 교수가 발표한 책이 세간에 화제가 되었었다. 다음 아년 「W이론을 만들자」라는 책이었다. 그 내용인즉, 한국사람의 속성상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독특한 국민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신바람만 잘 조성하면 남들이 불가능 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능히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예로 88년 올림픽의 성공사례 등을 꼽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기초로 하여 사회관리이론을 체계화하면 여러 부문의 발전전략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우리 사회에서 행해진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면 분명 우리 국민의 분위기에 약한 속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몇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매

우 상반된 경우가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듯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 나뉘는 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각 속담이 쓰이는 때가 다른 것이다. 이렇듯 좋은 이야기도 그 시대적, 상황적 여건하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듯이 W이론도 어떠한 시대적 단계에서 논의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도 과연 이러한 신바람에 의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외국의 한 경제학자는 최근 한계에 부딪힌 듯한 한국경제의 모습을 보며, 각 분야에서의 프로정신(Professionalism)에 입각해 쌓아놓은 노력의 뒷받침없이 잘 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오다가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니 예전의 성장 원동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듯 우

리의 속성인 신바람 근성은 어느 단계에선 커다란 장점이 되기도 하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약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선진국단계 진입을 위하여는 이제 W이론에 의존하는 성장전략보다는 보다 그 구성내용에 충실하여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하겠다.

조금 진부하게 이야기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논의가 1주년을 맞이한 지구환경정상회담 국내대응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세계사의 시작을 고하기라도하듯 성대한 행사가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으며, 당시 언론 및 사회 각 분야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토의 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를 회고해 본다면 아마 환경바람이 우리나라에 크게 몰아닥쳤다고 해도 과히 틀린 표현이 아닐 듯 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요즈음을 살펴볼 때 당시의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은 분

위기에 편승한 유행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의 높았던 관심과 열기는 사라져 버리고 경제가 어려우니 성장부터 걱정하고 환경등 복지문제는 조금 참았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옛생각으로 후퇴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 이렇듯 경제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왜 우리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 사회의 동참이 필요한지, 어떻게 환경보전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환경바람에 편승한 결과가 아니었나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알맹이 없는 회의였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은 나름대로의 가지적인 성과를 산출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의제 21」이라고 하는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을 잘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할 위원회를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구성한 것이다.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명명된 이 위원회는 몇 번의 준비회의를 거쳐 지난 6월 14일부터 2주일 동안 첫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개국의 환경장관들이 참가하는 등 각국의 이 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리우회담 당시 지구환경문제에 소극적이던 미국정부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 및 강력한 환경론자인 엘 고어 부통령의 영향력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달라진 여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첫날 미국대표로 지속개발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고어 부통령은 달라진 자문기구인 지속개발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구체적인 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할 움직임이다. 이렇듯 미국은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어 부통령의 말처럼 유엔지속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지구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혹자는 지속개발위원회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물론 이 위원회가 목적하는 대로 지구환경보전의 파수꾼이 되는데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아마 유엔회의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처음에 갖게 되는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 및 수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과연 여기서 얻어진 결론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지닌 구체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국의 속담이 생각난다. 「창문을 열고 날씨를 예측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며 날씨를 예측하라」는 것이다. 즉, CSD의 성과를 단지 몇년간의 변화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보다 긴 시간적 테두리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주시한다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개발위원회가 다들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서 「의제 21」 실천을 평가할 각국의 국가보고서 작성은 가계부를 적지 않던 가정살림을 꼬박 꼬박 기록하고 정리하여 낭비적인 살림이 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과 흡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환경정책의 공개 및 투명성을 통해 새로운 국제압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쟁거리로 삼기 보다는 비록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국가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받게될 충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대비가 우리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및 우리 사회전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되기 때문이다. 혁명도 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듯이, 리우에서 심어진 지구환경보전의 구체적인 노력이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유엔지속개발위원회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정부 및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보전이 낯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며 우리도 세계속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도덕적 각성 및 분명한 지구적 사고 확립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히 기업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최근 자주 들리고 있는 기업환경주의(Corporate Environmentalism)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환경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상품의 전주기관리(Life Cycle Assessment)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상품의 제조를 위한 원료의 선택 및 사용단계로부터 생산과정, 소비과정, 소비이후의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등 상품생산과 관련된 전주기관리를 통해 환경보전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전주기관리를 통해 원료 사용 절감, 재활용 증가, 포장폐기물 감소, 폐기물처리부담 감소 등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환경친화적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성향에도 부합하여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를 구축한 기업에게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실제적인 예로 코닥회사의 경우 기업 내에 환경관리담당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를 설치하여 기업환경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X-ray 필름에서 음식 포장용기까지 코닥의 상품들은 천연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제조과정의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60년대 후반 이래로 칼라필름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90% 이상을 줄여 왔으며, 1982년 필름에 T-Grain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은(silver)

의 사용을 대폭 줄였으며, 은의 재활용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이러한 코닥의 재활용 노력이 폐기물처리 및 새로운 원료의 구입비용 금액의 1/7로 이루어져 기업 및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계산이다. 미국 텍사스 지부(Texas Eastman Division)의 경우 생산은 50% 증가한 반면 에너지사용은 40% 감소하여 미국 EPA로부터 Prestigious Administrator's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기업환경주의의 실천은 기업에 대한 부담

이 아닌 기업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촉진제임이 실증되고 있다.

우리의 개방적인 경제·산업구조를 볼 때 외국의 환경친화적 기업활동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 우리의 기업들도 세계사의 커다란 맥을 이루고 있는 환경보전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는 바람이 아닌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이루어야 하겠다. ♣

■ 일반상식 ■

벼락 피하는 법

높은 건물 · 뾰족한곳 · 나무주변 피해야

본격 장마철을 맞아 특히 야외에서의 벼락(落雷) 피해자가 자주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벼락의 정체와 원인 = 비가 잦은 여름철 천둥·번개와 함께 흔히 동반돼 일어나고 있다. 원인은 불안정한 상태의 積亂雲에서 생긴 정전기가 지표면으로 방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름의 상층부에 양전하(+), 하층부에 음전하(-)가 일정량 이상이 생기면 다른 구름 또는 대지의 전하와 작용, 순간적 방전을 일으켜 발생한다.

방전할 때 거대한 소리와 빛을 내는데 이것이 천둥과 번개이며 지상으로 떨어지는 방전현상이 벼락이다.

번개가 흔히 하늘에서 구불구불하게 내려오는데 이는 구름에서 방출된 전하가 대략 1백만분의 1초단위로 50여m씩 불규칙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벼락이 지상의 목표물에 접촉되면 크기에 따라 다르나 순간적으로 약 10억V의 전압과 5만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순간 열에너지는 약 3만도로 태양에너지의 5배를 넘

는다.

▲인체영향 = 벼락을 맞은 사람의 30%가량이 사망하며 美國에선 해마다 3백명 정도가 낙뢰 사고로 숨진다 한다. 가정용 2백20V 전압에도 감전돼 죽는 사람이 있는데 10억V 전압의 직류전기충격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벼락이 1백만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뤄지는 방전현상이기 때문이다. 주요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로 이는 심장박동을 일으키는 심장내 전기적 신호 발생과정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주위 나무등에 떨어진 벼락에 비껴맞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

▲예방·대피 = 벼락은 지표면의 정전기가 많이 모인 곳에 떨어진다. 이런 곳은 높은 건물·뾰족한 곳·나무·전신주·금속등이다. 벼락을 피할 때는 이런 곳은 피해야 하며 특히 야외에서는 골프채·낚시대·장신구등 금속으로 된 물건을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벼락은 극히 짧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번개가 치는 순간 이를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이 필수적이다.